



(새 사령탑 팀 베어빅)

이젠 2010이다



다시 뛰자! 한국축구

■ 4강 추억 잊어라
16강 탈락 아픔 보약 삼아
세대교체·K리그 활성화 등
축구계 전반 혁신 필요

■ 기술풍을 키워라
선수들 기량 4년간 제자리
사령탑 전략으론 한계
개개인 전술 운영 더 중요

“물론 전술적인 면도 중요 하지만 결국 기술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06 독일월드컵축구 본선에서 안타깝게 16강 진출이 좌절된 아드보카트호의 흥망(37) 코치가 지난 24일(이하 한국시간) 스위스와 마지막 경기 직후 한 말이다.

홍 코치는 비교적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중장기적으로 한국축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대일 대응 능력과 선수 개개인의 전술 운영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축구는 이번 월드컵에서 역대 원정 대회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또 전 국민의 열정적인 성원을 등에 업고 여전한 선전을 펼쳤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이후 무려 52년 간이나 기다려온 원정 첫 승을 올렸고 1998년 월드컵 우승국 프랑스를 강인한 체력과 조직력으로 몰아붙이며 대승한 경기를 펼쳤다.

마지막 스위스전에서도 비록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에 추격의지가 꺾이기는 했지만 조별리그 세 경기 가운데 가장 화려한 공격축구를 선보였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번 월드컵을 되돌아보면 더 이상 한국축구가 감독의 전략·전술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에 접하게 된다.

팀 아드보카트(59) 전 감독은 본프레레호 시절 잇단 부진으로 친체의 눈에 빠져있던 한국축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선수들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령탑이 부임함으로써 한국축구는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도 주목될지 나름의 경쟁력을 갖췄다.

아드보카트호는 히딩크호와 달리 시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뚜렷한 인상을 남겼다. 무엇보다 특단의 ‘파워 프로그램’을 소화하지 않았음에도 90분 내내 체력적으로 상대 팀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세 경기에서 공통적으로 전반보다 후반에 내용이 좋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시의 적절한 교체 선수 투입 등 아드보카트의 응변술도 돋보였다.

결과적으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기에 사령탑의 총체적인 전략을 성공적이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피말리는 승부처에서 아드보카트 전 감독의 응변술이 돌고리를 열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멀리 2010년 이후를 내다본다면 한국축구가 이제는 선수 개인의 기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략 아래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떤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더라도 일정한 전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축구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번 월드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다시 시작이다. 아드보카트호가 2006 독일월드컵축구 본선에서 진한 아쉬움을 안고 퇴장했지만 그렇다고 한국 축구의 변천한 역사가 이대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래 한국 축구는 지금부터 4년 뒤인 2010년을 내다보며 차근차근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축구계 안팎의 공통된 제언이다.

아드보카트호는 비록 한반도의 새벽을 뜨겁게 달구며 지역민리를 날아 전해져 온 전 국민의 간절한 열원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월드컵 원정 도전자에서 무려 52년 만에 이뤄낸 감격적인 첫 승리를 비롯해 우승 후보 프랑스를 쫓아내 한 장면 등 세계 축구 팬들을 충분히 놀라게 할 만한 전과를 올렸다.

또 아드보카트호가 그동안 여러 포메이션을 넘나드는 전술적인 실험과 젊은 피, 베테랑의 적절한 조화, 체력과 기동력에 예리한 집중하는 전략적 목표 설정 등 지난했던 항해를 헤쳐오면서 보여준 도전의 자세는 대표팀의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하게 해준 자양분이 됐다.

그러나 역시 유럽의 높은 벽 앞에서 한계를 절감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아드보카트 전 감독이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과’라고 말했듯이 한국축구는 현실적인 기반에 든든하게 발을 딛고 재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자각했다.

앞으로 일정 기간 휴식기에 돌입할 축구대표팀은 오는 9월 Kick-off되는 2007 아시안컵 예선을 시작으로 다시 계도에 오른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닥친 경기 일정보다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차기 월드컵을 겨냥해 중장기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아드보카트 전 감독의 후임으로 한국 축구 대표팀을 맡게된 팀 베어빅 선임 감독을 중심으로 축구협회와 축구계가 ‘2006년 독일에서의 뼈아픈 경험’을 보약삼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먼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전반적으로 선수층의 기반을 새롭게 닦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그동안 축구대표팀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일궈낸 4강 신화이라는 업적에 지나치게 안주한 나머지 활발한 세대교체와 풍족한 대표 자원을 만드는 작업을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과 2003년, 2005년 세계청소년(U-20)선수권대회 출전 멤버 가운데 일부가 성인대표팀으로 수직 이동해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많은 유망주들이 제대로 검증받을 기회를 잡지 못한 채 대표팀 수준에 범접하기 힘든 선수로 묻혀져간 경우도 적지않다.

따라서 연중 상비군 체제를 운영하듯이 국내과와 해외과 전 체를 아우르는 대표팀 선발 방식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리그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혁신 작업도 축구계 전체에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축구계 전체가 독일의 교훈을 온몸으로 받아들이 새로운 틀을 짜야 할 시점인 것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주영)

(박주영)

(조원희)

(이천수)

(이호)

작은남남 큰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정시도는 본사 시판부(062)222-8111	백두대간완손짜장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면으로 직통배달이다. 정통완손짜장은 대표 강상수 ☎(061)833-3777	맑은샘한의원 매곡동 호반차점점 맞은편 동종비전·원주·신촌·신원·신원·신원 원장 양재선 ☎(082)575-6666	쌍용공인중개사사무소 내방동 잣동 옥교이대 APT, 주력, 상가 임대 및 매매 전문 대표 이한성 ☎(082)372-2557	세원치과 화정동 금호APT상가 2층 원장 김점숙 ☎(062)372-2422	호박골 행안동 광주대우 미술공예연구소 전북·신원·신원·신원·신원·신원 대표 윤용립 ☎(062)676-0080	가든뷰티랜드 계림동 광고에서 구역(가리중간) 미용·피부·화장품·헤어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대표 박영희 ☎(062)524-8888	대한총회해광주지부연구소 두원동 현대APT2차후동3가리 고기능·신원·신원·신원·신원·신원 대표 박영희 ☎(062)266-7559	
요션건강원 목포 신정동 구자유시장 후문 최신도당·신원·신원·신원·신원·신원 대표 박영희 ☎(061)242-9584	삼점집에 소주한잔 여수점 여수 신원·신원·신원·신원·신원·신원 대표 이호심 ☎(061)682-5623	한솔회마트 고흥군·읍 서문리 옥산동협동 대표 김준중 ☎(061)832-2661	오토상사 축석동 195-3번지 대표 박종석 ☎(062)571-0002	우정스포츠평화원 중흥동 경주안동교차로 우정우도하원 대표 송민희 ☎(062)521-9747	늘외바다 운림동 운림중학교앞 대표 김재선 ☎(062)234-2633	광제당한약국 봉선동 포스코APT앞 대표 김재선 ☎(010)9477-4063	홀린이용원 두원동 포스코에서 4차후동5000원 대표 김용석 ☎(062)522-2804	신명의자 하동 하동동사무소 맞은편 대표 전동일 ☎(062)234-8980
조선회관 여수 하동 여수신원·신원·신원·신원·신원·신원 대표 박호민 ☎(061)681-3040	중가집설령방 여수 하동 부영 301동건너편 대표 김인중 ☎(061)833-3883	이동직업소개소 목포 대방동 3-50번지 대표 김인중 ☎(061)247-0077	리치공인중개사 매월동 579-5번지 대표 조선제 ☎(062)682-0034	라인반점 화정동 라인APT앞 대표 김성수 ☎(062)372-0397	PC카페 쌍용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성수 ☎(010)4600-7234	에덴공인중개사 입북동 입북중학교앞 대표 김성수 ☎(010)7288-4351	응문회관 응문동 안동교차로 맞은편 대표 박영희 ☎(062)574-9233	에실시용음악학원 중흥동 전대후방동 입북동2000사점 대표 박영희 ☎(062)514-5757
윤선생영어교실 여천서부지점 여수 신원·신원·신원·신원·신원·신원 대표 박영희 ☎(061)685-2280	종로회관 고흥읍 옥거리 법무시공목 대표 김인중 ☎(061)833-3883	맞고음등등오리전문점 화정동 남계리 목지골목 대표 황화자 ☎(062)375-1127	메리트노리뱅크 유동 현대백화점 대표 양정민 ☎(062)522-9729	평안나염기획 신안동 신안리 대표 김성수 ☎(010)4604-0368	동일기업 화정동 영주계곡맞은편목공 대표 주원석 ☎(062)368-9271	사랑방가든 매곡동 사랑으로APT앞 대표 이삼덕 ☎(062)575-1019	파티디스PC게임방 주원동 주원시장 대표 이삼덕 ☎(010)3816-9985	펄프PC게임방 하동 그림프리호텔맞은편서부 대표 이삼덕 ☎(010)3298-2566
비전시용음악전문학원 여수 신원·신원·신원·신원·신원·신원 대표 박영희 ☎(061)681-1977	고흥공인중개사사무소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대표 김인중 ☎(062)833-8112	드림공인중개사 유동동 862-12번지 대표 김인중 ☎(062)385-4242	구름정승물놀이 화정동 목지골목내 대표 김경진 ☎(062)376-2510	금남골프아카데미 롯데백화점앞 금남동 6층 대표 김인중 ☎(082)222-9959	SK전원텔레콤 주원동 롯데리미 대표 주원석 ☎(062)652-8484	한별공인중개사 월계동 남부대학교후문 목공 대표 이삼덕 ☎(062)433-8950	바다이야기 AVTOⅢ 두원동 무등도서관가리 SK 대표 이삼덕 ☎(010)3816-9985	알리딘골프게임방 하동 그림프리호텔맞은편 대표 이삼덕 ☎(011)805-8133